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30호 2004년 8월 13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30~32 / FAX.042-472-3264

## 중소기업전용 1천억원 규모 원화표시 ABS 발행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오는 9월말 1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전용 원화표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4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계획으로 일환으로 1천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ABS를 오는 9월말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으로 받아 약 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ABS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신용등급 B-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BBB- 이상은 70억원(발행금리 6.5~7.0%), BB-~BB+는 50억원(발행금리 7.0~8.0%), B-~B+는 40억원(발행금리 8.0~9.0%)까지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정부채정(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17%의 후순위채를 인수하고 주간사인 대한투자증권이 발행금액의 3%의 중순위채를 직접 매입하며 산업은행이 발행금액의 30%를 추가 지급보증하는 등 외부 신용보강으로 발행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ABS 발행 참여 중소기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일반회사

채(SB)를 함께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BW 발행시에는 참여기업의 만기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기별로 균등 분할 상환하되 발행금액의 5% 수준의 신주인수권을 대주주가 인수토록 하여 경영권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SB 발행시에는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발행금액 5% 수준을 할인 발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이나 대한투자증권(www.daetoo.com)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77)

# 중소기업고유업종 2006년말까지 단계적 폐지

## -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

45개 중소기업고유업종이 올해말부터 오는 2006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45개 중소기업고유업종 중 올해말까지 고무장갑 등 8개 업종이, 2005년말까지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 19개 업종이, 2006년말까지 곡물건조기 등 18개 업종이 각각 해제된다.

지난 79년 도입된 이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다각화에 따른 중소기업 영역 잠식을 사전에 차단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지정의 장기화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생력을 저하시키고 대기업의 참여 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실효성이 저하돼 해제하게 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당한 침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기청장은 심의를 통해 대기업에 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고유업종 해제 일정과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2004년 12월 31일(8개) = 고무장갑, 광택제, 동모세관, 축압기, 타올, 거울판, 폴리스치렌 페이퍼 슈트, 연마지 및 포

△2005년 12월 31일(19개) =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스텐레스용 접강관,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재생 알루미늄, 플라스틱용기, 쇠뭉, 어육연제품, 장갑편조, 안테나, 수산물냉동냉장, 재생플라스틱 원료, 노트, 양곡도정, 동물약품, 국수, 두부, 유아용승용물, 재생타이어, 안경렌즈, 전기절연유

△2006년 12월 31일(18개) = 곡물건조기, 골판지상자, 리드와 이어, 생석회, 옥수수기름, 우산, 아연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 양산, 오일크리너, 아연화, 아연말, 아스콘, 탄산가스, 도금, 세폭직물, 안경테, 양말편조, 기타 비윤활유

▶ 중소기업정책국  
기업환경개선과  
(02-503-7930)

# 재래시장 속속 새모습으로 단장

## - 이달 중 5개 시장 환경개선사업 완료 -

이달 중 전국 재래시장 5곳이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새 모습으로 문을 연다.

이 달에 환경개선사업을 마치는 시장은 전북 장수시장, 청주 원마루시장, 전주 남부시장, 충주 무학시장 및 자유시장 등이다.

오는 6일 완공되는 전북 장수시장은 지난 1953년 개설된 목조 함석 건물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했으나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7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장옥 5동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함으로써 그 동안 60여개 점포 100여명의 상인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원마루시장(8.15일 완공)은 3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아케이드,

간판정비 등 시장 리모델링을 통해 산뜻한 모습으로 시장을 정비했으며, 전주 남부시장(8.30일 완공)은 710개 점포에 1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 중심시장으로 20억원을 지원받아 아케이드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중이다.

또한 충주 무학시장(13억원 지원) 및 자유시장(20억원 지원)도 이달 말 완공 예정으로 환경개선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기청은 그 동안 전국 459개 재래시장에 총 219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차장·화장실·아케이드 설치, 건물 리모델링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30% 및 상인 20%씩의 비용을 각각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담비율을 10%로 낮추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7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10억원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이달 중에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는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중소기업정책국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9-7061)

## 중소기업 직무기피요인 해소 추가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에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컨소시엄사업'과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컨소시엄사업'의 경우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능력을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기기, 설비, 시스템 등) 개발에 소요

되는 비용 중 '컨소시엄사업'은 총 사업비의 70%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까지,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70%내에서 과제당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www.smba.go.kr](http://www.smba.go.kr)) 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http://www.kitech.re.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개발한 장비들을 동종 기업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의 주요 내용을 중기청 및 생기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연중 구입희망업체를 접수하고 있으며,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 기업성장지원국  
인력지원과  
(042-481-4392)

## 수출중소기업에 법률자문 지원

수출계약이나 해외투자 등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관련 절차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애로를 겪던 수출 중소기업들이 국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법무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과 '해외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수출계약, 무역분쟁, 투자유치, 해외합작투자 등 국제 상거래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국제법률관련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적인 법률 애로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주재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로 구성된 '해외법률자문단'은 무역분쟁 해결,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등 해외현지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법적지식 및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자문 비용은 건당 200만원까지 개별기업당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초 법률상담은 법무부에, 법률자문단을 통한 자문지원은 중기청 또는 중진공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수출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해외법률자문단도

지원성과에 따라 국가 및 분야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24)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199개사 신규지정

중소기업청은 올 2분기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 Inno-Biz)으로 총 199개사를 신규 지정했다.

이는 지난 1분기(107개사)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이노비즈로 지정된 기업은 총 2681개사에 달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에는 총 291개 업체가 신청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가진단 결과 280업체가 예비평가를 통과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99개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47개사로 전체의 74%를 차지하였고, S/W(41개사), 서비스(4개사), 바이오(4개사), 환경(3개사)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지역이 60.8%(12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규모별로는 50인 이하의 기업이 71.4%(142개사)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초과기업은 28.6%(57개사)이다.

또한 업력별로는 10년 미만의 기업이 75.4%(150업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기업이 24.6%(49업체)이다.

중기청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14개 협약 시중은행을 통해 보증 및 신용여신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2001년부터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보유기술이 뛰어나 미래성장 가

능성이 높은 기업을 이노비즈로 지정해 자금, 판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08년까지 총 1만개의 이노비즈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49)

## 2분기 신용대출 우수지점 선정

중소기업청은 올 2분기 중소기업 신용대출 우수지점으로 우리은행 동수원지점(지점장 박이수), 기업은행 구미3공단 RM지점(지점장 김홍섭), 부산은행 중앙동기업고객지점(지점장 최진현) 등 3개 지점을 선정하여 표창했다.

신용대출 우수지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활성화와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국 6369개 은행지점중에서 3개 지점을 선정하고 있으며, 분기별 신용대출실적, 신용대출증가율, 여신금리, 제도개선 실적(70%) 및 거래 중소기업들의 설문조사(30%) 결과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우리은행 동수원지점은 2분기 중소기업 신규여신 194억원 중 76.3%에 해당

되는 148억원을 신용으로 대출, 신용대출 규모가 전 분기에 비해 79.3% 증가했다.

기업은행 구미3공단 RM지점은 2분기 중소기업 신규여신 242억원 중 65.0%에 해당되는 157억원을 신용으로 대출했으며, 특히 거래 중소기업들이 평가하는 설문조사 결과, 이용편리성, 대출과정 투명성 등 2개 분야에서 30점 만점을 받아 고객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지점으로 평가됐다.

부산은행 중앙동기업고객지점은 여신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분석으로 기존 담보여신 관행을 신용 대출로 적극 전환하여 2분기 중소기업 신규여신 1707억원중 60.5%에 해당하는 1032억원을 신용으로 대출했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82)